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6936.99	↑ 코스닥	1213.74
	(+338.12)		(+21.39)
↑ 금리 (미국 3년)	3.615	↓ 환율 (원/달러)	1476.50
	(+0.020)		(-6.80)



전자·차·통신업계 까지 성과급 두고 하투 확산

〈夏闘:노동계의 여름철 투쟁〉

산업계 전반 임단협 갈등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동 리스크 확대에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 외에도 반도체 업계의 역대 성과급 요구 상황이 산업계 전반에 노사간 대립의 불씨를 키우는 모습이다. 노조측의 공세적 투쟁기류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주주, 투자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성과급 문제로 파업위기에 앞선 삼성전자의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노사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총예고에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을 것" 신제윤 의장 '대화 해결' 촉구

삼성바이오, 계열사 첫 파업 돌입 LG U+, 임금 8%인상 등요구하고 현대차·기아, 한국GM도 노사대립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노조 등이 성과급을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계 하투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분위기를 이끄는 모양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을 5일까지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노사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총파업을 전제로 임금과 성과급 협상을 진행중이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사간 고강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성과급 배분 기준과 연동 방식이다. 영업이익·순이익 등 경영 성과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 간 성과급 수준 비교가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면서 역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다른 기업 노조의 눈높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채용, 인사고과, M&A(인수합병) 등 핵심 경영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통신업계도 비슷한 흐름이다. LG유플러스 노동조합은 성과급 증액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임금 총액 8% 인상, 생산성격려금(PI)·성과급(PS) 평균임금 산입, 호칭 하한 연봉제 신설,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으로 지급, 우리사주 200주 분배,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 AI 도입을 이유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등이 담겼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기준 4.16% 인상에 합의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완성차 업계도 성과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완전 월급제 시행,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하며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아 역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은 정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지난해 GM 총매출의 10% 가운데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안에 담았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국가 기반산업인 반도체산업은 타이핑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과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 경쟁력을 잃게 되고 회사가치가 하락하면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과 세수감수, 환율상승 등으로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은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단협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과격적인 요구안을 내세운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잔치 열풍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어린이날, 청와대 와서 신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

반도체의 힘, 뭉치돈 유입 '7000피 눈앞'

외국인 하루에 코스피 3조 사들여 삼전·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집중 개미 '포모 심리' 예탁금 역대 최대

6936.99, 코스피가 7000까지 63.1포인트를 넘겨주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증시 주변을 맴도는 시중 뭉치돈과 위험 자산을 쫓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7000선에 올려놓을 것으로 본다. 이들을 증시로 이끄는 힘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이 자리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팔자'에 나섰던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1조1282억원어치 순매수한 외국인은 5월 첫 거래일인 4일 하루 동안에 2조945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반

도체 등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5월 첫날 삼성전자를 1조1971억원, SK하이닉스를 1조6916억원 각각 사들였다.

시장 전문가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7000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 근거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외국인 매수세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858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0% 증가했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3.5% 증가한 319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328억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째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

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도주인 반도체의 실적 모멘텀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게 매수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개미들의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개인 투자자 예탁금은 129조732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음 날에도 124조 원대를 유지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 확대에 나서면서 '빚투'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36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30일에도 35조7131억원을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신하는 기자 godhe@



metro

"선박 피격... 韓, 호르무즈 임무 가담할 때"

美 트럼프, 파병 당위성 부각

미국이 '호르무즈 해상작전'에 돌입한 데 이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다시 무력을 가했다. 미군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교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한국의 대이란전쟁 참전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상선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란군에 피격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관련기사 2면>

페르시아만 일대에 주둔 중인 미군은 4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을 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들의 항행·탈출을 지원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 휴전논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뒀다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

주요 외신은 미군이 해방작전 수행 첫날부터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항행을 시도하는 상선을 호위한다는 명분이었다. 미군이 각국 유조선·화물선 등의 해협 진출입을 지원함에 따라 이란군은 즉각 저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후 3시10분쯤 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 호기관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아라비아해 쪽으로 향할 시 양쪽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기 직전의 해역이다. 두바이 앞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놴.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방부, '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준장 등 3명 파면·1명 해임
▲장동혁 "李, 공소취소 특검 등 온갖 폭탄 지신 뒤로...투표가 막는 길" /사진 뉴스

▲與 "정진석, 자숙은커녕 뻔뻔하게 공천 요구... 국민 기만"
▲홍준표 "정권 망쳐놓고 나만 살겠다고 출마... 뻔뻔하다"

▲국정자원, 2417억 통합구축... '화재 폐원' 대전 투자 최소화
▲美 코리아데스크 첫 회의... 강경화 "한미동맹, 경제 아울러"